

중국, 옥외광고 정비 및 관리 위한 시범사업 시작

http://www.mohurd.gov.cn/wjfb/201907/t20190708_241095.html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옥외광고시설 관리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장춘, 우한, 청두, 샤먼, 칭다오, 선전, 우시, 주저우, 루가오 총 9개 도시에서 6월부터 시작되어 1년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옥외광고시설의 난립과 품질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위법한 옥외광고시설의 철거와 장기적인 품질관리 메커니즘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옥외광고시설 관리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건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도시는 2~3개의 도로와 12개의 지역을 선택해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 시 중점을 뒀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시행

관련법에 따라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배치와 통제 목표, 광고의 유형 등을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옥외광고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도로와 지역은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의거해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련 정책 개선

시범사업 대상 도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체 법규를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 허가과 기술 규정, 안전 및 위험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일련의 제도를 개선하고 옥외광고 관리 시스템을 수립·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실행

시범 대상지인 도로와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설치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시와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세부계획에 근거해 정비 방향을 설정하며, 처리 방법과 기준 등을 명확히 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세워진 표준 규범에 충족하지 못하는 옥외광고시설은 법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 정착

옥외광고시설의 상시적인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감독검사의 강화, 불법 시설 신설에 대한 단호한 억제와 시정, 품질 관리를 통해 상시화를 위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관리체계와 책임을 강조하고, 위반 시 관련 주체의 합동 처벌 등을 고려하며,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를 촉진한다. 도시 옥외광고시설 관리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